컴퓨터학부 2024052015 김동건

제목 : 학창 시절의 추억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나의 인생 영화 '세 얼간이'

서론 : 1. 학창 시절에 영화를 본 경험이 있다

본론 : 1. 영화를 통해 학창 시절이 떠오른다

          2.영화를 보는 아이들의 태도에서 그들의 성격과 성적, 미래가 보인다

          3. 영화 ‘세 얼간이’는 내 주변 친구들을 떠올리게 해준다.

결론 : 1. 영화 ‘세 얼간이’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해주는 인생 영화이다.

ㆍ여러분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또는 자주 영화를 관람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영화를 주로 관람하시나요? 직접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관람할 수도 있고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해주는 걸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OTT의 발달로 집에서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로 영화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본인의 인생 영화가 있으신가요? 왜 그 영화가 인생 영화인가요? 사실 저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 영화를 직접 찾아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많은 영화를 관람하지 않아서 영화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도 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은 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바로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영화를 보여주시었던 경험입니다. 기말고사가 다 끝나고 학기가 끝나갈 때 수업 진도를 다 나갔으면 가끔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영화를 다운받아 와서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영화를 시청하곤 했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다른 짓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차차 하고 여러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영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영화인 제 인생 영화 ‘세 얼간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왜 ‘세 얼간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 이유는 이 영화를 떠올리게 된다면 저의 많은 추억이 존재하는 그때 당시의 학창 시절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한 번만 보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보여주시는 것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긴 영화를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 끊어서 계속 들어오실 때마다 보여주시면서 이어서 보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국어 시간에 한 번, 중학교 3학년 국어 시간에 1번, 고등학교 1학년 사회 시간에 1번, 이렇게 총 3번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중학교에서 보여주셨던 2번은 같은 선생님께서 보여주셔서 2학년에 보다가 끊긴 내용부터 이어서 보게 되어 끝까지 결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1번 봤을 때는 중학교에서 봤던 기억들이 떠오르며 내 주변에 있었고 친했던 친구들이 없고 새로운 친구들이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중학교 친구들과 함께 보던 추억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서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할 것이 없으므로 영화를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저 친구들과 ‘오 주인공 멋지네’, ‘되게 재밌다’ 등의 간단한 감상평들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애들과 이야기하며 급식이 어땠고 시험 난이도는 어땠으며 어제 봤던 유튜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세 얼간이’라는 영화를 떠올리면 영화 내용도 기억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나누던 이야기들과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ㆍ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영화를 같이 보던 아이들의 태도들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영화를 보여주시는 시간은 수업 시간이므로 개개인이 마음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고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업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선생님은 어차피 수업 진도를 다 나갔기 때문에 공부할 게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영화라도 보며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에서 영화를 보여줬을 겁니다. 그렇기에 혼자 자습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잠을 잔다든가 하든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교실에는 영화관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곤 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면 친구들이 평소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성적이 어떠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친구들의 미래 모습까지 보입니다. 영화를 보여주는 그 시간에 공부하거나 학원 숙제를 하며 자습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공부 성적이 높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아 대부분 나중에 가서도 높은 성적을 받으며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영화를 그냥 보여주는 데로 봤던 친구들은 대체로 착하고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따르는 학생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학생들이며 보통 이 친구들은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잘 따라가서 성적을 어느 정도 잘 받아 중상위권의 대학에 진학합니다. 이 시간에 잠을 자거나 친구들과 장난하고 떠드는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이거나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들로 보통은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거나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아 성적이 낮은 편입니다.

ㆍ마지막으로는 ‘세 얼간이’라는 영화가 제 주변 친구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해주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세 얼간이’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각각 태어나고 자란 환경들이 다르고 본인들이 타고난 능력들과 성격들, 추구하는 방향들 역시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서로 같은 대학에서 만나 서로 친하게 지내고 둘도 없는 친구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 점을 보면서 저 역시도 제 주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같은 학교, 같은 반이라는 같은 공간에 함께하고 있는 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어느 순간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는 제 친구들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분명 우리 역시도 태어나고 자란 환경들과 타고난 성향들은 다르겠지만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다른 것들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됐는지를 생각해 보며 우리들의 우정에 대해서 다시금 떠오르게 해주었습니다.

ㆍ결론적으로 영화 ‘세 얼간이’는 누구에게는 상영 당시에 영화관에 직접 찾아가서 본 첫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OTT에 올라오고 유명하다고 하니까 찾아본 영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만큼은 그렇게 단순히 그저 유명한, 재밌는, 킬링타임의, 혹은 안에 담긴 내용의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이 아닙니다. 바로 저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는 인생 영화입니다. ‘세 얼간이’라는 영화를 떠올리게 된다면 먼저 천천히 저는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면 저는 어느새 풋풋한 중학교 1학년이 되어있습니다. 앞을 바라보면 선생님께서는 교탁에서 저희에게 영화를 보여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천천히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곳에는 제 친했던 친구들이 자리에 앉아 선생님이 영화를 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산만하게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는 한 무리도 보입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저희는 영화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막 나오며 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가끔 선생님께 시끄럽다고 주의를 들을 때면 다시 자세를 바로 앉으며 영화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영화를 보다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친해졌지? 분명 우린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친구로 지낼 수 있지?’ 그러다 친구의 장난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친구는 웃으며 영화에 대해서 감상을 조잘조잘 떠들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며 같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다 수업 시간이 끝나는 종이 치고 저는 종소리와 함께 눈을 깜빡입니다. 현실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저 ‘세 얼간이’에 대해서 생각하기만 하였는데 달콤한 추억 속으로 들어갔나 봅니다. ‘세 얼간이’는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저의 인생 영화입니다.